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8월-용맹정진의 달

- 해태심의 극복
- 날마다 발심하기
- 정진의 방편
- 쉼없는 수행

정진의 방편

◇지난 6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법화경 사경대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한자 한자에 마음을 모아 정진하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 우주의 실상을 바로 알아차려 마음에 낀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마음자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세속의 욕망을 끊고 출가수행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가행정진을 하고 있다.

하안거 기간 동안 서울 도봉동 광륜사 시민선원에서 매일 참선 수행을 해 온 정혜승씨(서울 도봉구 방학동). 정진의 방편으로 참선수행을 택해 지난 3개월간 자신의 마음자리 찾기에 매달렸다.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에 짬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루 2시간,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불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일상을 지탱해가는 힘을 얻었다. 정씨는 하안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참선 정진할 생각이다.

회사원 김경진씨(인천 남구 주안동)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금강경〉을 읽는다. 타종교 신자들이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며, 나는 왜 불경을 저렇게 당당하게 읽지 못하는 걸까 자책하다가 결심을 하고 시작한 정진의 방법이다. 회사까지 40여분 가는 동안 〈금강경〉 일독은 자연스레 이뤄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강경〉 독송은 계속된다. "하루 종일 회사일로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불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는 방법으로 금강경 읽기가 적당한 방법인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과 정진' 둘 아니게 실천해야

참선·염불·사경·봉사 등 방편 다양

생활과 정진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만 명심한다면 굳이 선방이나 절을 찾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정진할 수 있다. 참선, 염불, 사경, 주력, 참회, 지계, 간경, 봉사 등 현재 생활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결연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정진의 힘을 몸소 느껴보자.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방일을 스스로 금하고 능히 물리쳐 어질게 된 이는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랐으니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다"고 하였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 방편을 택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길에 나서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불자의 삶이다.

이은자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21일 (수)

■'관조스님 사진전' = 청주박물관 기획전시실은 '관조스님(범어사) 사진전시회'를 31일까지 마련한다.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산하를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 25점을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도시인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될 것이다. 관람료는 무료 (043)255-1632

8월 23일 (금)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용진신행회가 한국 불교 선맥의 고향인 문경 봉암사를 찾아가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마련한다.

신라 헌강왕 때 지증대사가 창건한 봉암사는 신라 말기 9산 선문 희양산파(曦陽山派)의 중심지. 수많은 보물급 불교문화재를 간직한 봉암사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의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는 2만5천원 (02)2279-1191

8월 25일 (일)

■연화복지원 '위빠사나 명상교육' =한국 유일의 미얀마 사찰인 '미얀마 선원' 주지 산디마 스님이 지도하는 '위빠사나' 강좌.

산디마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많은 한국 불자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1시 광림사 법당에서 강좌를 진행 중이다. 무료.(02)2202-5831

■두레생태기행 '문화답사' =산 깊은 마을의 절집을 찾아서….

두레생태기행이 경북 김천 직지사와 수도사, 청암사 등을 둘러보는 문화답사를 마련했다. 직지사는 보물 319호 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606호 3층석탑, 보물 607호 비로전 앞 3층석탑 등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출발은 오전 7시 지하철 양재역. 참가비는 3만5천원 등(02)712-5813

8월 26일 (월)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불교의식 전수' 과정=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범음 · 범패 · 작법 등 불교의식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통해 직접 배우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은 인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 나비춤 기능 보유자 일초스님이 지도하는 1년 과정과 2년 과정의 불교의식 전수 과정을 마련했다. 접수 마감은 24일. 개강은 26일 오후 3시 서울 화곡동 다원빌딩 내 불교종합예술대학.(02)3665-8067

■대구 동화사 '백고좌법회' =동화사가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을 초청해 '관세음보살의 수행법'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철우스님에 이어 혜능(해인사 율원장) 성열(강남포교원 주지) 호진(전 동국대 교수) 지관(가산불교문화원장)스님 등을 법사로 모시고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053)982-0101

8월 27일 (화)

■부산불교신협 '고산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 개점 10주년을 맞아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 초청 법회를 오후 2시 불교신협 건축사회관 12층 강당에서 봉행한다.

'양심 따라 행동하면 지계, 마음의 벽 허물면 저절로 평화…'라고 강조하는 고산스님을 통해 불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051)633-9120

■수원포교당 '금강경 이야기'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말고 진리로서 존경하며, 모든 모습은 모양이 없으며 이렇게 본다면 곧 진리인 여래를 보게 된다.'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오후 7시 30분 수원포교당 관음전으로 묘주스님을 초청해, 금강경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무료.(031)245-9670

"합창단은 음성공양·신행 밑거름"

우리 절 우리 신도

선학원 중앙선원 유정혜성 합창단장

◇30년을 한결같이 선학원 중앙선원에 다니고 있는 유정혜성 보살(맨 왼쪽)은 요즘도 법회 때마다 음성공양에 앞장선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자리잡은 선학원 중앙선원(주지 성중)은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남다른 위치를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도심 사찰과 다름없어 보이는 중앙선원에는, 멀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 가까이는 석주 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큰스님들이 주석하며 수행했다. 1921년 조선불교 선학원 설립 후 3년 뒤 생긴 부인회관은 도심 속 재가불자들의 수행도량인 시민선방의 모태가 됐고, 지금도 면면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선학원 중앙선원에는 유난히 몇 십 년씩 중앙선원만 고집하고 다니는 불자들이 많다. 합창단장을 맡고 있는 유 정혜성(63) 보살 역시 마찬가지다. 결혼 후인 30대 초반부터니까 30년이 넘었다.

"그때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었는데, 시댁 어른들을 따라왔다 큰스님들 법문이 너무 좋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큰스님들 법문이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탓이다'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나를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흥에서 선학원을 오가던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같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절로 옮길 때에도 유 보살은 중앙선원을 떠나지 못했다.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거쳐간 곳이기도 했지만 내 집같이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다니기 쉬운 다른 절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 자연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중의 크고 작은일까지 챙기게 됐다. 그러다 신도회 부회장 '감투'도 썼고, 1990년에는 합창단을 만들게 됐다. "그 때만해도 합창단이 없어 큰 법회 때마다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30년 신도…절 살림 내집일 같이 챙겨

"법당 청소년 불자들로 가득 찼으면…"

처음 40여 명이 모여 시작한 합창단은 92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불교방송 지방방송국 설립기금 모금을 위한 연합합창단 공연을 비롯해 무대에 여러 번 올랐다.

봉사활동도 빠뜨릴 수 없다. 군부대나 고아원 위문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도 공연은 아니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강릉 자비원을 다녀왔다. 합창단은 일년에 두번씩 생활 형편이 좋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혜성 보살은 '합창단은 단순히 음성 공양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신행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법회 마치고 한 시간씩 찬불가를 부르다 보면 신도들 간에 단합도 잘 된다"는 정혜성 보살은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양주 일을 비롯해 절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혜성 보살에게도 요즘 말못할 고민이 있다. 60대 불자들도 '신심' 하나로 합창단 일에 적극적이지만 지금 합창단원 25명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버 합창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다는 정혜성 보살은 "40대 이하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합창단뿐 아니라 신도회 활동이 활성화될 텐데….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때까지는 합창단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예순이 넘은 요즘도 법회 때마다 음성 공양을 빠뜨리지 않는 유보살은 선학원 중앙선원이 시민선방의 명성 못지 않게 신도회 활동도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유보살은 "불교가 활성화되는 길은 청년이나 어린이들이 절을 많이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요즘은 절에 올 때마다 법당 안에 어린이나 젊은 불자들이 넘쳐 나기를 부처님께 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성중스님 선학원 중앙선원 주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 문을 연 선학원 중앙선원은 시민선방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 도심 속 수행 공간으로, 지금도 5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선방이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서의 중앙선원을 보여준다면 합창단은 신행의 가장 든든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혜성 보살은 30년을 한결같이 선학원에 다니고 있는 대표적 불자입니다. 합창단을 직접 창립했고 10년 넘게 단장을 맡아 꾸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법회 때의 음성 공양뿐 아니라 사중의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표나지 않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허드렛일까지 마다 않는 정혜성 보살 같은, 신심있는 불자들이야 말로 중앙선원을 이끌어 가는 힘입니다.

구담사 양력 9월 8일

봉 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행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저희 구담사에서는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써 매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아 영가 천도재는 잃어버린 태아(낙태, 유산)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천도하는 의미는 그 영혼이 남은 가족에게 악연을 맺지 않기 위함이요, 참회하는 마음이다. 태아 영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회 기도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기도로 업장소멸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악연을 쌓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동참합시다.

기도방법

■ 태아영가 기도 방법

- 스님하고 49일간 영가 천도재 동참하여 기도한다.
- 사경 및 주력으로 기도한다.
- 부부가 함께 참회기도 하는것이 좋다.
- 태아영가는 조상영가와 같이 천도재는 하지 않는다.
- 기도할때는 아기야 미안하다고 하고 참회기도 한다.
- 최소한 7회이상 태아영가 천도재를 하는것이 좋다.
- 기도할때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지극히 기도한다.
- 준비물 : 분유(우유), 사탕, 과자, 쵸코렛, 쵸코파이, 장난감, 신발, 양말 등등

◉ 입제일 : 양력 9월 8일(음력 8월 2일 일요일)
◉ 회향일 : 양력 10월 27일(음력 9월 22일 일요일)
◉ 태아영가제사 : 입재(9월 8일) 3재(9월29일)
5재(10월13일)
7재(10월27일) 지냄
◉ 대중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연곡4리 하차
수유리(4호선) → 일동 → 구담사
◉ 구담사 버스 운행 :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 오전 8시까지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정일관광)
◉ 기도금 :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 협 : 225050-56-033370
※ 금년 대학 입시생,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기도 접수만 받습니다.
※ 지방신청도 가능하오니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 031)533-2855 팩스 : 031)532-2441
총무보살 마하심 : 02)446-6101,
H.P 011-391-6101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현대사회의 변화속도 만큼이나 한 가정의 해체, 즉 부부간의 이혼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해체는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그 주된 원인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그릇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부부간에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부부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 대 상 : 가정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포교사,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 수강료 : 5만원 (한빛은행 : 098-088769-01-501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일 시 : 2002년 9월 2일, 3일 - 9월 9일, 10일(4회 20시간)
◆ 문 의 : 02)738-5586, 5568 / 팩 스 : 02)738-7576
◆ 장 소 : 만해교육장 ◆ 인 원 : 30명(선착순)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Basic course(기본과정)

시간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2일(월)	강 사	9월 3일(화)	강 사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박정혜변호사 (여성합동 변호사협회)	가부장 제도와 여성인권	이영애교수
10:00~12:30	1.성 가정폭력법 해설		1.가족구도와 가치의 변화	
12:00~13:00	9월 2일(월)	이동원교수 (이화여대)	점 심 시 간	이영애교수 (건국대 법학부)
13:00~15:30	1.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2.가족보다는 나의 생활, 결혼시기도 내마음대로	

2. Advanced course(심화과정)

시간	아내학대 발생과 원인 치료 상담			
	9월 9일(월)	강 사	9월 10일(화)	강 사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이자형교수 (이대간호학과)	분노조절 다루기	안귀여부교수 (고대심리센터)
10:00~12:00	1.아내학대 발생과 원인 2.폭력의 초기 발생성		1.부정적 감정 다루기	
12:00~13:00	점심시간	황경숙선생 (여성의 전화 전문상담원)	점 심 시 간	이영진교수 (김영애가족치료 연구소)
13:00~16:00	1.폭력의 유형 - 폭력 후 강제성관계		2.부부의 갈등 및 외도 - 인지행동적 접근	